글쓰기 클리닉

◎ 활동목적

1. 글쓰기 클리닉(한국어·영어·중국어·일본어)을 통한 재학생 인문소양 함양에 기여
2. 교양교과와 연계한 개별 첨삭지도 및 글쓰기 능력 향상 기반 마련
3.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조성

◎ 활동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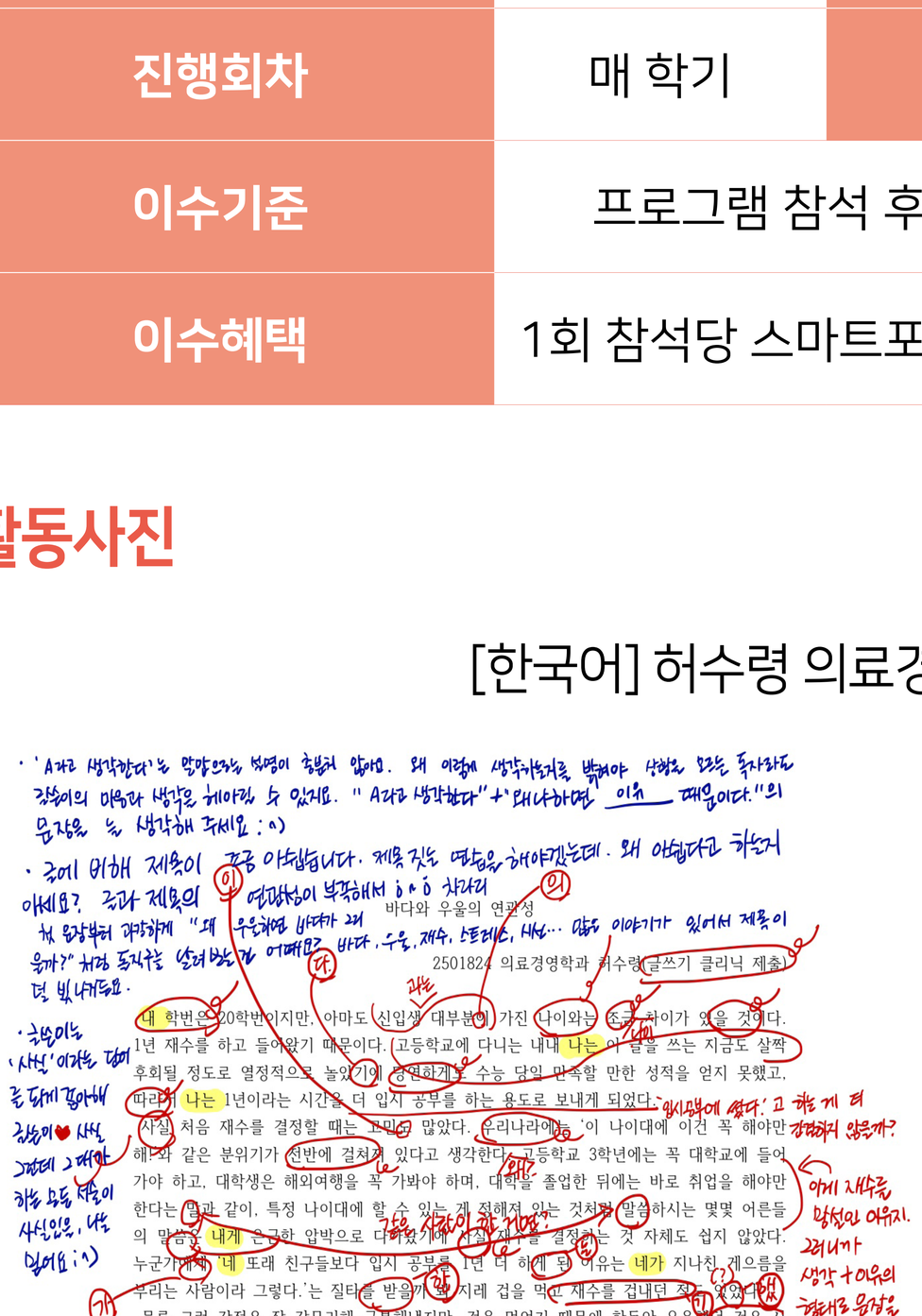
- 체인지업시스템 신청을 통한 글쓰기 클리닉 실시
- 매 회차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실시
-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

◎ 프로그램 상세설명

비교과유형	학습	**운영방법**	클리닉
진행회차	매 학기	**인증시간(분)**	50분 / 1회당
이수기준	프로그램 참석 후 참가 확인서 발급하고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		
이수혜택	1회 참석당 스마트포인트 5점 지급(학기당 최대 지급 가능 포인트 40점)		

◎ 활동사진

[한국어] 허수령 의료경영학과 (지도교수 : 강민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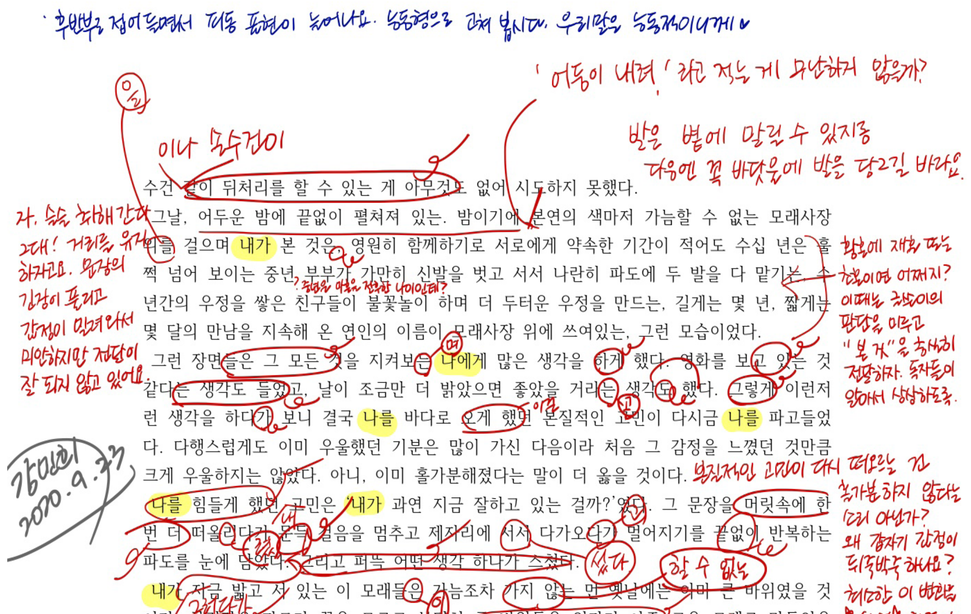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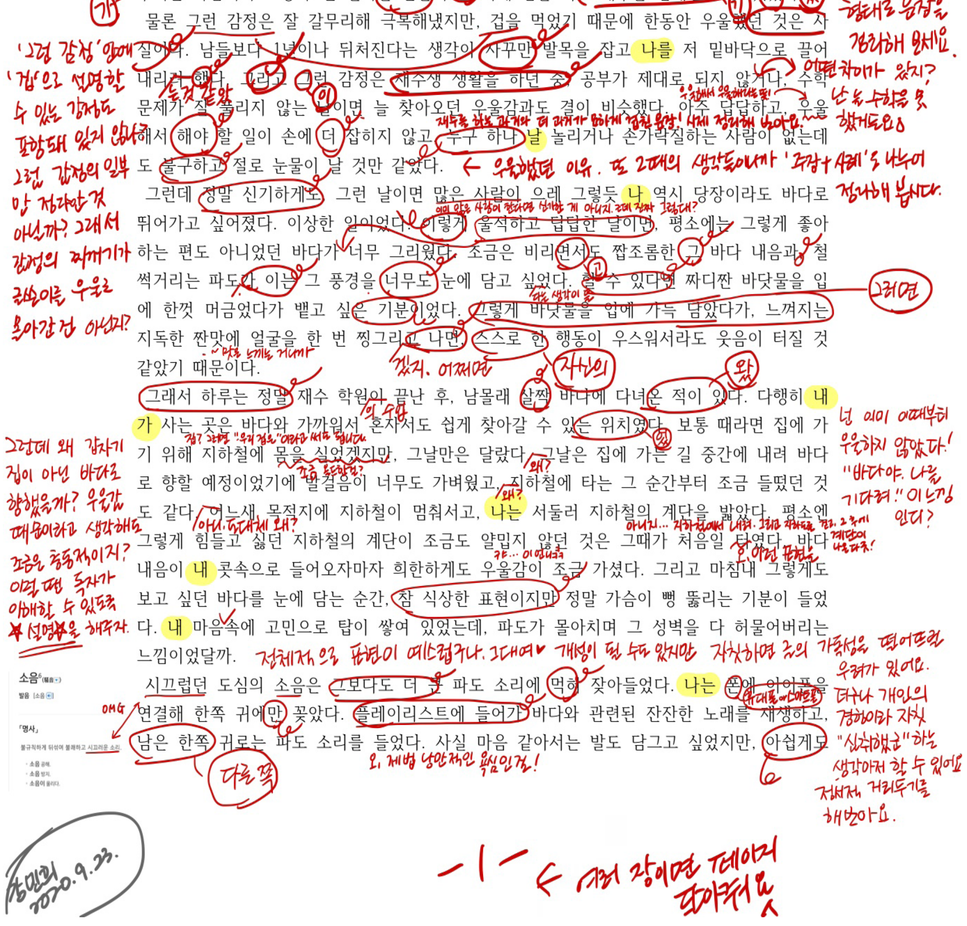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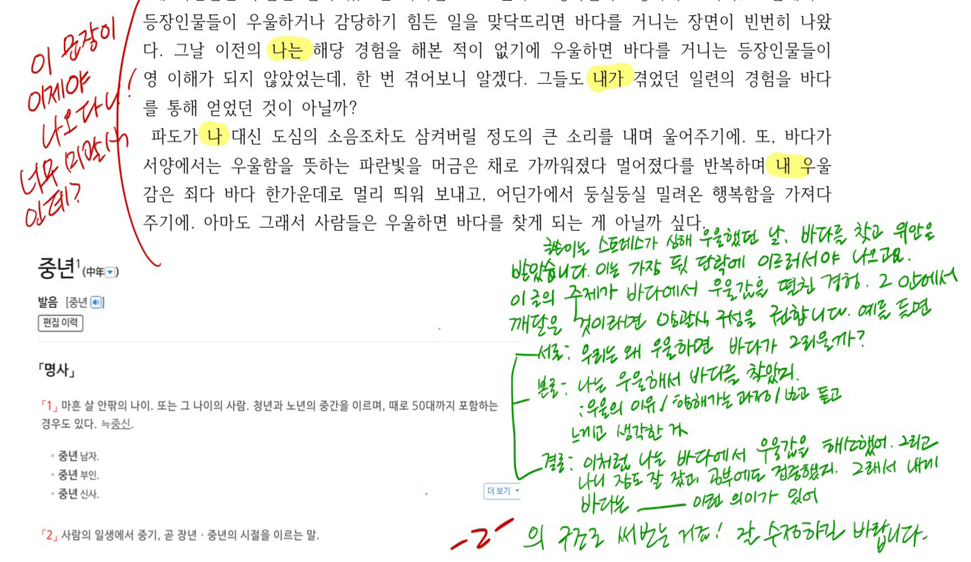
바다와 우울의 연관성

2501824 의료경영학과 허수령 (글쓰기 클리닉 제출)

내 학번은 20학번이지만, 아마도 신입생 대부분이 가진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. 1년 재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. (고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나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살짝 후회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놀았기에 당연하게도 수능 당일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고, 따라서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입시 공부를 하는 용도로 보내게 되었다. 사실 처음 재수를 결정할 때는 고민도 많았다. 우리나라에는 '이 나이대에 이건 꼭 해야만 해!'와 같은 분위기가 전반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한다. 고등학교 3학년에는 꼭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고, 대학생은 해외여행을 꼭 가봐야 하며,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바로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말과 같이, 특정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몇몇 어른들의 말씀을 내게 은근한 압박으로 다가왔기에 사실 재수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. 누군가에게 '네 또래 친구들보다 입시 공부를 1년 더 하게 된 이유는 네가 지나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라 그렇다.'는 질타를 받을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재수를 겁내던 적도 있었다.

물론 그런 감정은 잘 갈무리해 극복해냈지만, 겁을 먹었기 때문에 한동안 우울했던 것은 사실이다. 남들보다 1년이나 뒤처진다는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고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다. 만약 그런 감정은 재수생 생활을 하던 중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, 수학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날이면 늘 찾아오던 우울감과도 결이 비슷했다. 아주 담담하고, 우울해서 해야 할 일이 손에 더 잡히지 않고, 누구 하나 날 놀리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.

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날이면 많은 사람이 으레 그렇듯 나 역시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가고 싶어졌다. 이상한 일이었다. 이렇게 울적하고 답답한 날이면,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던 바다가 너무 그리웠다. 소금은 비리면서도 짭조름한 그 바다 내음과 철썩거리는 파도, 이런 그 풍경을 너무도 눈에 담고 싶었다. 할 수 있다면 짜디짠 바닷물을 입에 한껏 머금었다가 뱉고 싶은 기분이었다. 그렇게 바닷물을 입에 가득 댬았다가, 느껴지는 지독한 짠맛에 얼굴을 한 번 찡그리고 나면, 스스로 한 행동이 우스워서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.

그래서 하루는 정말 재수 학원이 끝난 후, 남몰래 살짝 바다에 다녀온 적이 있다. 다행히 내가 사는 곳은 바다와 가까워서 혼자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였다. 보통 때라면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겠지만, 그날만은 달랐다. 그날은 집에 가는 길 중간에 내려 바다로 향할 예정이었기에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웠고, 지하철에 타는 그 순간부터 조금 들떴던 것도 같다. 어느새 목적지에 지하철이 멈춰서고, 나는 서둘러 지하철의 계단을 밟았다. 평소에 그렇게 힘들고 싫던 지하철의 계단이 조금도 알밉지 않던 것은 그때가 처음일 터였다. 바다 내음이 내 콧속으로 들어오자마자 희한하게도 우울감이 조금 가셨다.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도 보고 싶던 바다를 눈에 담는 순간, 참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. 내 마음속에 고민으로 탑이 쌓여 있었는데, 파도가 몰아치며 그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느낌이었달까.

시끄럽던 도심의 소음은 그보다도 더 큰 파도 소리에 먹혀 잦아들었다. 나는 귀에 이어폰을 연결해 한쪽 귀에만 꽂았다.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바다와 관련된 잔잔한 노래를 재생하고, 남은 한쪽 귀로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.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발도 담그고 싶었지만, 아쉽게도